

## 달러 추가 강세, 7월 CPI에 달렸다

### ■ 주간 동향: 7월 고용지표 호조로 흔들린 파월 피벗

- ✓ 파월 피벗 기대감으로 약세 기조를 보이던 달러화는 7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로 촉발된 9월 자이언트스텝 부활 우려로 3주만에 강세 전환됨. 다만, 파월 피벗 기대감이 아직 공존하면서 강세폭은 다소 제한적 수준에 그침
- ✓ 유로화 가치는 달러 약세 편승 흐름이 일단락되면서 소폭 하락 전환함
- ✓ 위안화 가치는 큰 폭의 약세를 보임.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촉발된 미-중 갈등 그리고 양안리스크가 위안화 가치 약세 흐름을 확대시킴
- ✓ 원/달러 환율은 양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주중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지만 달러 약세 및 외국인 국내 주식순매수 기조 지속으로 전주대비 소폭 하락 마감함. 다만, 7월 미국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영향은 원/달러 환율에는 반영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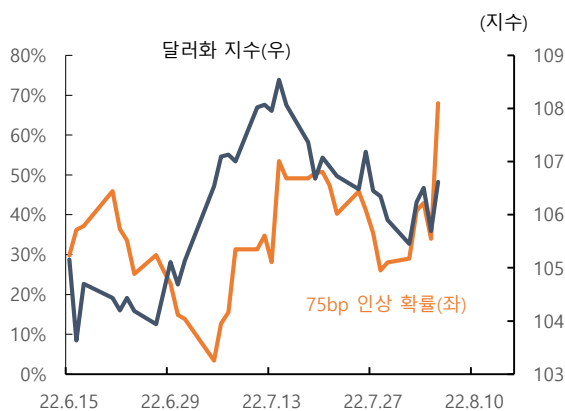
〈표〉 주요국 주간 환율 동향

	8월 5일 증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106.6	0.68	11.45
달러/유로	1.018	-0.36	-10.44
엔/달러	135.0	1.31	17.32
역외 위안/달러	6.766	0.24	6.43
원/달러	1298.3	-0.06	9.22

### ■ 금주: 달러 추가 강세, 7월 CPI에 달렸다

- ✓ 파월 피벗 기대감이 재차 살아날 수 있을지는 10일 발표되는 7월 소비자물가에 달렸음.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정점론에 힘을 더해줄 경우 파월 피벗 기대감의 부활로 달러화 역시 약세 기조로 재차 전환될 것임. 반면에 7월 소비자물가가 또 다시 쇼크를 던져줄 경우 파월 피벗의 소멸 그리고 경기침체 확산 등으로 달러화 강세폭이 확대될 것임
- ✓ 양안 리스크 확산 여부와 하이난 봉쇄 불거진 제로 코로나 리스크가 위안화 가치의 약세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음을 주목
- ✓ 주초 원/달러 환율은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7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분수령 역할을 할 것임. 7월 소비자물가가 시장에 안도감을 줄 경우 주식시장의 안도랠리 지속과 함께 원/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. 추세보다는 변동성 강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

그림1. 9월 미 연준 75bp 인상 확률과 달러화


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. 양안 리스크를 반영중인 대만 달러



## Compliance notice

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
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(작성자 : 박상현, 류진이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